

“의미”(meaning)의 화용론적 해석 시도

주 학 능
영어영문학과

언어학의 연구목적이 “이미”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정의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의미”자체의 정의는 아직도 합의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언어학에 많은 유평파가 파생하게 되는 이 유종의 한 가지는 “의미 개념 정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언어철학이나 언어학에서 일찍(Greek)부터 “의미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언어가 갖는 어쩔수 없는 표현상의 제약성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즉 우리는 한 가지 언어 기호로서 몇 가지 서로다른 외부현상(the events of the external world)을 인식표상(mental representation)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엄연한 현상을 무시하고 언어기호와 인식표상 간의 관계를 일 대 일의 대응관계로서만 해석하려는 종래의 연구방법론 때문에 “의미”해석 자체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언어기호가 표상하려는 외계현상자체에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들 외계현상 유형 분류를 시도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들이 존재가 능한 세계(the possible worlds)이론을 원용하여 “의미”의 다원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An Attempt to Account for “meaning” from Pragmatic View Point

Joo, Hark-Neung

Dept. of English Lang & Lit

Abstract

“Linguists study meaning, and also use meaning as a criterion for studying other aspects of language”(David Crystal 1980, 222).

As suggested by the above cited, it is in general agreed that the purpose of linguistic studying is to study “meaning”. Ironically, however, there has never been defined “meaning” itself, in spite of continuous desperate research for “meaning definition” by many from ancient Greek philosophers to today’s linguists.

Greimas/Courtes say, “the concept of meaning is undefinable”.

Linguistic expression/sign can have several aspects of meaning, but most linguists and philosophers have tried to treat one aspect of meaning as the whole meaning the sign refers to.

It would be a great mistake to try to interpret a linguistic sign in one-to-one correlation to its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external world event. To solve this problem, first of all there ought to be designated the categories of the external world event expressed into mental representation by linguistic sign, because one of the categories can be considered as meaning of the sign: that is, there can be as many kinds of meaning as the number of the categories which are controlled only under quite different constraints independent of each other.

Second, it should also be defined how many and what kinds of possible world are there in the discourse/speech context. They are probably Linguistic-, Real-, and Cognitive-world. The combined idea of meaning categories and possible worlds would enable me to account for the problematic expressions raised by some linguists and philosophers.

“의미”(meaning)의 화용론적 해석시도

- (i) Semantic structure is not universal. It is language specific to a considerable degree. Further, semantic structure is based on conventional imagery and is characterized relative to knowledge structure.
- (ii) Grammar(or syntax) does not constitute an autonomous formal level of representation. Instead, Grammar is symbolic in nature, consisting in the conventional symbolization of semantic structure.
- (iii) There is no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grammar and lexicon. Lexicon, morphology, and syntax form a continuum of symbolic structures, which differ along various parameters but can be divided into separate components only arbitrarily.

(Langacker 1983, 4)

Langacker는 언어학의 현황을 (i), (ii), (iii)과 같이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유행하는 지식을 공식화 한다든지, 현존 모형에 의해 이론을 추정한다거나, 이미 개척되어 있는 방법론을 답습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을 지양하고, “a radically new perspective, an innovative framework that will permit us to attack traditional problems in new and productive ways” (1983, 4)의 추구를 역설 한다. 이에 힘입어, 언어학의 근본문제인 “의미(meaning)” 규명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 서 론

(1-1) Semantics is the study of linguistic meaning. (Katz 1972, 1)

(1-2) What is “meaning”?

(1-1)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서, 일견 의미론의 연구대상인 “의미”개념은 명백히 정의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1-2)의 물음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는 찾아볼 수 없고 끝없는 논란만 거듭된다(Katz 1972, 1). 수천년 동안에 걸친 철학자들의 집요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2)에 대한 해답은 미해결 상태에 있다(Framkin/Rodman 1983, 163). 그래서 “the concept of meaning is undefinable”(Greimas/Courtes 1982, 187)이라고 하는 절망적 단정논도 있다.

Ogden/Richard(1923, 186-7)가 22가지나 되는 “의미”의 정의 목록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Leech(1981, 3)는 “meaning”이라는 기본 용어에 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어서 혼란과 오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를 개탄하고 있으며, Lyons(1978, 122)는 “meaning”/“to mean”의 구체적 용례를 10가지나 들고 있다. 언어철학자들이 수천년 동안 “의미”논란에 시달려 왔으나 언어철학 분야에는 “... 끝없는 혼란이 지배적이며, 합의된 바는 거의 없고, 새로운 방법이 맹렬히 추구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아직은 시작도 못한 형편”(Caton 1971, 3)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의미” 규명의 의의와, 그 방법론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개념을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점검하여 본문에서 취급하게 될 “의미”를 정의 해 두하고자 한다.

(1-3)... “meaning” as used preanalytically is a vague(and indexical) umbrella term that covers a surprising number of distinct and only loosely related notions: ...(Lycan 1984, 25)

(1-3)는 “의미”가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정의를 가능케 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차례에 위에서 언급한 몇몇 학자의 “의미”정의를 살펴 보자.

Ogden/Richard의 “의미”정의를 철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 평론가, 문필가, 과학자 등의 전문용어를 다른말로 풀이한 것이며(Leech 1981, 3), Lyons의 예시는 영어의 “meaning”/“to mean”이라는 특정 어휘를 대상 언어(object language)로 그 사용예를 살펴본 것으로(1978, 122), 언어일반론의 “의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Semantics에서는 흔히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에 Semantic feature이론을 도입, 한 낱말이 갖는 이미의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낱말의 의미해득이 아니라, 그 낱말의 지시대상물(referent)의 속성분석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 그 의미 소성은 또 다른 낱말로 나타내어야 하는 취약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woman”...+Hunam+Adault-Male(Leech, 1981, 95) 등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Human...+Feather+Speech+Animate+Biped 등으로 세분해야 하는 순환모순(vicious circle)에 빠지게 된다(We are back where we started. ...O’Grady/Dobrovolsky 1987, 173).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미소성(semantic features)을 나타내는 낱말을 “Primitive semantic elements”(Framkin/Rodman 1983, 192)라 하고, 이들을 기하학의 “점” “선”등과 같은 공리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설은 체면적 모면책일뿐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Leech(1981, 117)는 이러한 순환모순 지적에 대하여, “the explanatory function of features is solely their role in the prediction of basic statements”라 해명하고 있으나, 그의 해명 역시 Framkin/Rodman의 “primitive semantic elements”가설과 다를것이 없다. 비록 “semantic features”이론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subcategories에 대한 “distinctive features”설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dog --- ‘Four legged’ ‘—Horn’ ‘—Speech’(Leech 1981, 83)로 정의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fox’, ‘wolf’ 등은 또 어떻게 식별해야 할 것인가? 그는 또 이같은 “subcategories”의 “변별적 소성/자질”로

* Metal(gold), +Metal(copper), #Metal(iron),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방법이 유효하려면, 금속의 종류 만큼의 Metal이 창안 되어야 한다는 또다른 모순을 수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존어휘를 다른 기호로 바꾸어 놓는 결과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 지를 다시 알아 내어야 하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의미소성 이론으로는 기능어(function words---at, on, which, the)등의 소성 분석이나 단계적(level)의미분석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Greek의 i ‘go imperative’의 “의미”가 발화의 어느단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Shawmyan 1987, 89)

(1-4)

1. ‘i’ is a sound, that is, a physical element.
2. ‘i’ is a phoneme, that is, a diacritic, a fundamental element that differentiates linguistic unit.
3. ‘i’ is a root, that is, an element that expresses a concept.
4. ‘i’ is a part of speech(an imperative form of a verb).
5. ‘i’ is a part of a sentence(a predicate).
6. ‘i’ is a sentence, that is, a message, a unit of communication.

1-6,은 그 기준에 따른 Greek ‘i’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의미분류는 다양한 기준설정이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추구하려는 의미기준을 대별하면 “a specific semantic theory(say English)”와 “a general semantic theory/semantic universals”(Leech 1981, 80)의 두 가지다.

Allen(1986, 76)은 후자의 입장에서 “대상 언어 Lo의 표현 Eo의 의미(the sense)가 어떤 다른 언어 Lm의 표현 Em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여 “의미”의 보편성(universals)를 주장한다. Lyons(1977, 3)는 모든 언어의 의미(linguistic meaning)가 다 표의(signification)에 의해 만족스럽게 분석될 수가 없다고 본다. Bloomfield(1933, 139)는 언어형식(linguistic form)의 의미는 화자의 충동과 청자의 대응이라 한다. Davidson(1985, 76)은 “...to give truth conditions is a way of giving the meaning of a sentence”라 하며 “의미”를 “진위”와 등가시한다. 그러나 Martinich는 “the cognitive meaning of a statement in an empirical language is reflected in totality of its logical relationships to all other statements in that language and not to observation sentence alone.”(1985, 11)이라 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정의를 요구한다. O Grady/Dob. (1987, 172)는 의미 범주를 “intension(개념)”과

“extension(외연)”으로 나누고, 전자를 “conceptual meaning”, 후자를 “referent”의 뜻으로 해석 하고 있을 뿐 “intension”의 규명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로 미루어 보아, “의미(meaning)”을 간단히 정의 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angacker의 “Meaning is what language is all about.”(1983, 6)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의미”의 정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면 그 제한 자체 때문에 연구대상언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모순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즉 분석 학자들은 “총체적 의미”를 무시하고, 형식 문제에만 치중하거나 언어학 분야의 자연적이고도 필요한 주요문제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언어연구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다(Langacker 1983, 6). 따라서 “의미”의 포괄적 이해는 언어연구 방향설정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고 확신한다.

(1-5) * The orphan has a father. (Leech 1981, 141)

Leech는 ‘orphan’의 의미 소성에 ‘fatherless’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1-5)은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 비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the orphan”이 명시적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점인의 확인을 위한 경우라면 일상의미(message) 전달이 가능한 정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the orphan’은 담화중의(in the discourse)어느 특정 인물을 지칭하고, 그 인물에 ‘has a father’란 새로운 정보가 있음을 알리는 말이다. 어떤 NP가 지시물(referent) 자체를 확인하는(identify)기능만 할 때에는 그 ‘conceptual meaning’은 별의미가 없다.

(1-6) 그 총각 아들 낳았다 드라.

(1-6)에서 ‘그 총각’은 화-청자 간의 특정 인물 확인에 공헌할 뿐 그 자구적 의미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다. 개념적 의미 내용은 없고, 지시적 기능만 갖는 직시어(deictics)나, 고유명사(name)와 같다. 의사전달 행위(speech acts)에는 언어적 표현 이외에도 여러가지 가능한 수단(도형, 숫자, 신호, 몸짓 등)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론이 일상담화의미 해석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일부 언어철학에서 “사실과 의미”를 동일시하는(...there is no firm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meaning--Martinich 1985, 12) 경향에서도 문제의 난맥상을 찾아 볼 수가 있다. 한 언어적 표현이 그 사용자 개개인에 따라,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 지기는 하지만, 만일 언어적 표현이 그 사용자에게서 독립된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언어는 효과적인 의사교환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언어학자나 철학자들은 이 “의미”의 객관적 규명을 설새없이 시도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명시적 의미”(conceptual meaning) 규명의 가능성을 과학적 기술이나 사실적 서술(true-false value conditionals theory), 혹은 사전의 표제어(entry)정의 등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Leech(1981, 7)는 명시적의미가 언어적 의사 소통에서 중심적 매체구실을 하고 있다고 한다.

Frege(1985, 202)는 고유명의 의미(meaning)는 그 이름이 지시하는 물자체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개념(idea)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들 양자사이에 의의(sense)가 있다고 하여 “meaning”, “idea”, “sense”를 나름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Leech(1983)는 “의미 소성”을 지시대상물(referent)의 속성 제시로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Leech의 주장에 따르면, “Featherless biped”와 “Animal endowed with speech”는 “man”의 의미 소성으로서 그들의 지시대상이 동일하다 할 수 있으나, 그들의 명시적 의미가 같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unicorn, the greatest glacier in Sicily)도 있는가 하면, “My brother has the toothache in his toe”(Leech 1981, 5)와 같이 명

시적 의미는 있으나 사실위배의 비문(nonsensical utterance)도 있다. Boys are boys (tautology) Time is money. Jack is a tigar. (Frankin/Rodman 1983, 172)등과 같이 Semantic features(+Human, +Male, +Adult, +Animate etc.) 등으로서는 규명할 수가 없는 의미론 외적인 수용가능한 발화(extrasemantic acceptable utterance)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여기에 화용론적 발화 의미 전반을 수용할 수 있는 일원론적 이론 추구가 불가능해지는 개연성이 있다.

Davidson(1985, 76) 역시 “A theory of meaning is an empirical theory, and its ambition is to account for the workings of a natural language”라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 방법론은 거론도 아니한다.

본론에서는 Wittgenstein(1963, 43)의 “the menaing of a word is its use in the language”라 하는 “용”(its use)을 “의미”의 핵이라 보고,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서 몇 가지 의미범주(meaning categories)를 설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주어진 대화적 상황에서 한 발화가 나타낼 수 있는 이미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 인가를 규명하는 동시에 그 발화의 언급 영역이 어디 (Linguistic-, Situational-, Cognitive-domains---주 학능 1985)인가를 밝혀서 한 발화의 화용적 의미를 보다 정확히 해석 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 제기

(2-1) The meaning of “evening star” would be the same as that of “morning star”, but not the sense.(Frege 1986, 205)

(2-2) The meaninig of “morning star” is not Venus, since one may not always say “Venus” in place of “morning star”.(ibid. 205)

문제 1. Frege(1986)는 (2-1)의 “the meaning of ‘morning star’”를 분명히 “the referent to which ‘the morning-star’ refers”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2-2)에서는 “the meaning of ‘morning star’”를 (2-1)의 “the sense”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the sense”와 “the meaning”의 이미 식별이 분명치 못한 것같다.

(2-3) *Cicero is a word with six letters.(Martinich 1986, 5)

(2-4) * “Cicero” is a Roman senator, (ibid)

문제 2. Martinich(1986)는 (2-3)은 인물 Cicero가 낱말(word)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고, (2-4)는 낱말이 사람 Cicero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위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사용상의편의의(practical device) 즉 인용부호 사용상의 관례에서 파생된 문제에 언급 했을 뿐, 의미 범주의 근본문제로 접근하려는 것은 아니다.

(2-5) I am a bachelor. (Martinich 1986, 6)

(2-6) John is a bachelor. (ibid)

(2-7) John is an unmarried adult male. (ibid)

문제 3. (2-6)과 (2-7)은 문장(sentence)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the same meaning)를

갖기 때문에 그들의 명제(proposition)는 같다(Martinich 1986, 6). Martinich가 “sentence”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기호양식(Linguistic type)를 말하는 것이지만, “the same meaning”은 Frege의 “the meaning”과 같고, “the sense”와는 다르다. 따라서 “the meaning”과 “the sense”와 “the referent”를 각각 나타내는 의미범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Type와 Token의 괴리현상을 문제삼고 있다.

문제 4. (2-5)는 (2-6/7)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2-5)의 발화자가 John이라고 가정한다면, (2-5/6/7)은 모두 같은 서술을 갖는다(Martinich 1986, 6). 여기에서 “statement”라고 한 것은 주어진 화맥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문장, 즉 화맥의존적 발화(context-dependent utterance)를 말한다. 이와 같이 Martinich는 일반적인 sentence를 기호양식 면에서 “sentence”, “proposition”, “statement”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범주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서 Frege등의 이미 개념과의 상관 관계를 알 수 없다. 또한 모든 언어적 표현양식을 “sentence”, “proposition”, “statement”로 수용 분류할 수 없다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8) It is raining. (Martinich 1986, 6)

(2-9) Piove. (Italian: ibid)

(2-10) Es regnet. (German: ibid)

문제 5. Martinich는 “sameness of proposition is translinguistic”라 하여, (2-8/9/10)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갖을 수 있는 것은(2-8/9/10)의 명제의 동질성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명제(proposition)는 진위조건 문(true-false conditionals)에 국한된 범주인데 (Greiman/Courtes 1979, 248), 의문문, 명령문 등 명제가 분명치 않는 표현은 “언어가 번역가능성”(translinguisticability)이 없게 된다. 그러나 Allen(1986, 76)은 “Eo의 이미(the sense)는 Em의 의미로 번역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2-11) If now $a=b$, then indeed what is meant by “b” is the same as what is meant by “a” and hence the truth-value of “ $a=b$ ” is the same as that “ $a=a$ ”. In spite of this, the sense of “b” may differ from that of “a”. (Frege 1985, 211)

문제 6. (2-11)에서 “ $a=b$ ”이면, “what is meant by a/b ”는 같고, “the sense of a/b ”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a”와 “b”는 각각 서로 같은 성분도 있고 서로 다른 성분도 있기 때문이다. Frege는 이 때에 같은 것은 “truth-value”이고, 다른 것은 “the sense”라 한다.

(2-12) In the proposition “I met a unicorn”, the whole four words together make a significant proposition. and the word “unicorn” by itself is significant, in just the same sense as the word “man”. But the two words “a unicorn” do not form a subordinate group having a meaning of its own. (Russell 1985, 214)

문제 7. Martinich(1986)는 명제가 같은 (2-8/9/10)은 의미도 같다고 한다. 그러나 Russell(1985)는 “I met a unicorn”은 의미있는 명제가 되지만, “a unicorn”은 그 자체의 의

미를 갖인 종속 집합이 될 수 없다고 한다. M와 R가 서로 주장하는 “meaning”과 “proposition”의 상호관계의 차이점은 의미범주의 설정없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2-13) ...dog has indefinitely many meanings. (=“four legged”, “hornless”, “incapable of speech” etc.)---(Leech 1981, 84)

문제 8. (2-13)에서 Leech가 “meaning”이라 한 것은 “dog”의 명시적의미(conceptual meaning)가 아니고, “the referent to which ‘dog’ refers”의 실체가 갖인 여러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다. Leech는 “four legged”등을 “dog”의 “semantic features”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들은 지시대상물의 여러가지 속성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이같은 “meaning”해석의 견해차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2-14) My tongue swore to, but my heart did not. (Austin 1985, 117)

문제 9. Austin(1985)은 (2-14)와 같은 발화를 내면적, 정신적 행위수행의 사실전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언급은 없다.

(2-15) Or course, he promises, don't you, Willie ? (Austin 1985, 119)

문제10. (2-15)의 화맥에서 “he”와 “you”는 다 같이 Willie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the meaning of ‘he’=the meaning of ‘you’”(Frege 등의 의미규정에 의함)가 성립되지만, (2-15)에서 “he”와 “you”를 상호 대치하면 그 의미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발화의 본래의 뜻을 유지하려면 대화자(Addressees)를 서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같은 이중구조를 갖는 발화는 일원적 의미론 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2-16) * The dead animal was still alive.(Leech 1981, 99)

(2-17) * This beautiful city is ugly. (ibid. 103)

문제11. Leech(1981)는 (2-16/17)은 “dead”와 “alive”, “beautiful”과 “ugly”의 의미소성이 상호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2-16/17)은 “모순”(contradictory)이라 한다. 그러나 일상 화행에서는 수용 가능한 발화이다. 이러한 사실은 Leech등의 모순이론이 자연어 해석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18) In 1940, Jane's husband was still a bachelor. (Fauconner 1986, 21)

(2-19) In 1940, Jane's husband divorced her. (ibid.)

문제12. (2-18)과 (2-19)는 semantic feature상으로는 상호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양립할 수 없는 발화이지만, “Jane's husband”가 서로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 있는 화맥에서는 수용가능한 논리적 발화로 양립할 수가 있다. (Fauconner 1986, 21)

(2-20) Boys are boys.(Leech)/Boys will be boys. (Wierzbicka)

(2-21)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the present king of France. (Russell 1985, 217)

문제13. Leech(1981)의 항진서술은 무의미 하다는 논리학적 이론으로는 (2-20)을 tautology로서 수용하고 있는 Wierzbicka(1987)의 화용론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또한

Russell은 (2-21)을 위라 하고, 그 이유를 “the present king of France”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Strawson(1985, 214)은 Russell의 주장에 반대하고, (2-21)을 의미 있는 문장이라 한다.

(2-22) This is a good hat. (Wiggins 1971, 30)

문제14. (2-22)는 허수아비에게 씨울 모자를 찾다가 낡은 쓸모 없는 “모자”를 발견하고 하는 말이다(Wiggins 1971, 30). 이 같은 발화상황이 명시되지 않으면 good/bad의 판단이 뒤바뀌게 된다.

문제15. Lyons(1976, 3)와 Allen(1986, 139)은 “meaning”과 “sense”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 의미론에서도 형식(form)에 대칭되는 내용(content)을 총칭하여 “meaning”이라 한다(Dictionary of Linguistics 223). 그런가 하면, Frege, Martinich 등 철학자들은 “meaning”과 “sense”를 구별한다. 이러한 상이한 “meaning”의 개념을 하나로 접합시킬 수는 없을까?

III. 의미 범주(Meaning categories)

의미론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구명을 시도하고 있는 “의미 개념은 “그 낱말의 지시실체를 그 낱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O’Grady/Dob, 1987, 127).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unicorn”, “round square”등 그 지시 대상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낱말의 이미 규정이 불가능하고, “The Prime Minister of Canada”와 “The leader of the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는 현 시점에서 동일인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들 의미는 서로 다르다. 이 같은 지시실체(referent)와 의미(sense)의 괴리현상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mental image”의미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at, in, though, etc.”의 “mental image”포착에 실패한다. 현재로서 여러 학자간에 합의된 의미 범주는 “extension”과 “intension”이다. 전자는 Frege등이 주장하는 “meaning/referent”관계이고, 후자는 “meaning/the concept that the word evokes”관계다. 후자의 “의미”와, “사고”와, “기호”간의 mechanism은 아직은 신비의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의미론 등에서는 “의미”를 발화되어 있는 말(utterance)을 해독하려는 측면에서만 고찰하려하기 때문에, 그 의미 규정에 난맥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Ogden/Richard(1923)의 22가지 “의미”정의는 한 낱말이 여러학문 분야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가능한 어휘의 coinage측면에서 분류한 것이고, Lyons(1977)의 “의미”정의는 특정 언어인 영어의 “의미”해석 일 뿐, 보편적 “의미”해석은 아니다(a specific semantic theory--Leech 1981 80). Leech(1981)의 7 가지 의미 유형분류는 어휘 전반을 실용적 가치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발화를 발화 과정에서 고찰해 볼 때에, 언급 하고자 하는 대상을 기호화(encoding)하는 데는 언어 고유의 제약성 때문에 몇 가지 상이한 표상 범주들을 동일한 기호로 축약 표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언어 경제적 제약을 수용하는 최상의 방편(devices)이 일어 다의 표상법(one-word multimeaning device)이다. 이 다의범주의 보편성

을 추정하여 “의미 범주”라고 가정한다.

한 발화 과정에서 언급대상인 실체를 기호화 하려면, 다음과 같은 5 가지 표상의 범주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3-1) ‘Dog’ is a word with three letters.

(3-1)에서 ‘dog’는 언어적 기호 자체를 나타내어, 일반 언어의 명시적 의미전달 범주와는 다르다.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Martinich(1986, 5)는 “dog” 또는 *dog* 등의 장치(devices)를 사용한다.

Eco(1979)는 /dog/를 사용하여 이를 구별한다.

(3-2) There is a dog over there.

현실적으로, 저 쪽에 개가 한마리 보인다고 하자. 그 사실을 전하려면 (3-2)와 같이 그 일(event)를 기호화 해야 할 것이다. 이 때에 “dog”는 눈 앞에 보이는 실물 “개”를 나타낸다.

Eco는 이 같은 “dog”를 //dog//로 구분한다.

(3-3) A dog is a faithful animal.

눈 앞에 “개”라는 실체가 보이지는 않으나, (3-2)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개”에 대한 일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3-3)을 사용 할 수가 있다. 이 같이 한 종류의 개념을 표상하는 기호의 의미가 Frege(1985)의 “the sense”, Leech(1981)의 “conceptual meaning”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Eco는 <dog>로 표기한다.

이상과 같은 3 가지 의미 범주 구분은 Eco가 Semiotics에서 이미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의미론”에 도입을 시도한 것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안다.

(3-4) This dog is mine.

(3-4)는 발화현장에서 여러마리 개 중에서 화자가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어느 특정 “개”를 청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그 발화의 의미를 이해 할 수가 없다. 이 같이 발화현장의 상황적 보완수단(손가락 질)이 없으면 그 발화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발화 자체를 Martinich(1986, 6)는 “statement”라 하고, 이 statement가 나타내는 뜻을 Grice(1968)는 “utterance meaning”이라 한다. 이 같은 “dog”를 <dog>로 표기 하기로 한다.

(3-5) I keep a dog at home. He is very strong..

화자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는 현존의 개 한마리이다. 따라서 화자는 이 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청자에게는 <dog>이상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다시말하면, 이 실체에 대한 정보양이 화-청자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dog/가 환기하는 상은 각각 다르다. 이 같이 한 낱말(sign)이 환기시켜 주는 정보양이 화-청자 간에 상이한 경우, 이것을 #dog#로 표기 해 둔다.

이상에서 “dog”는 그것이 사용되는 발화 속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

음을 살펴보았다. Alston(1971, 36)도 한 낱말에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의 의미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는데에 필요한 만큼 많은 의미(senses)가 적절히 배정되어 있다고 하여 의미범주가 다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들을 정리하면 (3-5)과 같다.

- (3-5) /E/ = E(expression) 기호 자체
- //E// = /E/가 지시하는 실체/사실
- <E> = /E/의 명시적 의미
- «E» = /E/의 발화적 의미
- #E# = /E/의 이중적 의미(«E»/<E>)

Frege(1985, 202)의 용어와 비교 해보면 “sign”은 /E/, “meaning”은 //E//, “idea” <E>, “sense”는 «E»와 각각 유사하다 할 수 있다. (3-5)의 각 등식에 작용하는 사고 기능을 살펴보면 (3-6)과 같다.

- (3-6) /E/ ---Expressin
- //E// ---Identification
- <E> ----Conceptualization
- «E» ----Specification
- #E# ----Specification(speaker)/Conceptualization(hearer)

일반적으로 sign(a word, a phrase, a sentence)에 그때 그때(3-6)과 같은 의식자용(reference)이 동원되어 기호와 실체를 접속하는 역매(mediator)로 화행을 수행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를 물건이나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잘 못이다(Eco 1984, 6). 언어는 형식(signifier)과 내용(signified)을 연결하는 기능(function) 자체요, 매체이다. 이러한 “의미범주”를 도의시하고 부여된 기호(utterance)를 모든 경우 다 같이 동일 차원의 의미로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의미론이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본다.

IV. 발화상의 지시실체의 존재영역

“...the study of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is above all the study of cognition.” (Jackendoff 1985, 27)

발화가 언급하게 되는 실체가 존재가능한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은 발화의 진위조건설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 (4-1) “Cicero” is a word with six letters. (Martinich 1986, 6)
- (4-2) It is raining. (ibid.)
- (4-3) The whale struck the ship. (Strawson 1986, 220)
- (4-4) The whale is a mammal. (ibid.)
- (4-5) John wants to catch a fish and to eat it for supper. (Lyons 1977, 675)

“Cicero”가 /Cicero/범주의 의미만을 포상하고 있기 때문에 /4-1/의 명제진위 조건은 언어세계의 제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4-1)에서 “six”를 “five”나 “four”로

대치하면 (4-1)은 위가 되지만, 만일 “Cicero”를 //Cicero//, 또는 «Cicero»로 해석하려 하면 그 진위조건은 성립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의미 해득에 혼란이 초래된다. (4-2)를 /4-2/의 범주 의미로 해석 한다면, 그 진위 조건을 특정 언어인 영어의 현재진행 시제 표시 규약에 의거 결정되어야 하는 언어세계의 명제가 되어 언어 철학 등에서 말하는 진위 명제와는 별개의 것이된다. 그러나 (4-2)를 «4-2»로 해석한다면, 그 진위조건은 발화시점에 비가 오고 안오는 현실적 상황이 좌우한다. 비록 <4-2>에는 위배되는 조건이 없더라도, 발화시에 “비가 오고 있지 않으면” «4-2»는 위가된다. Martinich(1986, 6)는 /4-2/가 <4-2>를 내포 할 때, 이를 명제라 하고, /4-2/가 «4-2»를 내포하면, 이를 기술(statement)이라 구분한다.

(4-3)의 “the whale”은 #the whale#이다. 화자의 상념영역(cognitive domain)에 기억 저장 되어있는 실체이나, 청자에게는 <the whale>이상의 정보가 주어지지 아니한 이 중 정보 매체다. (4-4)의 “whale”은 <the whale>로서 류개념을 표상하는 관념적실체를 지시한다. 영어의 단순 현재형은 언제나 항상시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the whale>은 “the whale”의 총체적 류/종을 나타낸다. 이같은 의미 범주를 Leech(1983, 77)는 “the category on the basis of factual knowledge of the real world”라 하여 (4-3)과 동일 범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4-3)과 (4-4)는 구별되어야 한다. (4-5)는 //4-5//로 처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a fish”는 현존적 실체는 아니지만, 화자의 상념에 존재 가능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현실세계의 실체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념 표시(Cw)가 필요하게 된다. Ideationalists가 주장하는 “idea”나 “intental conception”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1)은 언어세계, (4-2)는 현실세계, (4-3), (4-5)는 상념 세계에 그 발화의 언급 실체가 존재한다. 상념 세계의 실체인지 가능 사실은 이미 넓이이정된 바이다. “We also perceive things in the mind’s eye as the result of some cognitive process like thinking or imagining”. (Allen 1986 107)

(4-6) Mrs. Oswald believes that the man who killed Kennedy did not kill Kennedy. (Time 1963)

(4-7) John denies that he kissed the girl who he kissed. (McCaw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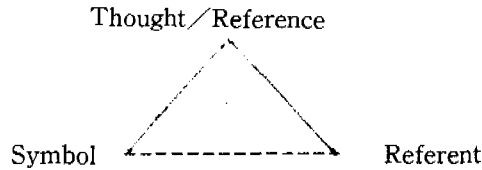
(4-6)은 “the man who killed Kennedy did not kill Kennedy...”라는 형식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발화이지만 화자의 의사 전달은 정확히 되고있다. 그 까닭은 “the man who killed Kennedy”와 “the man... did not kill Kennedy”는 각각 상이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화행의 상이한 존재영역은 그 고유의 제약조건이 있을 뿐, 타의 제약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the man who killed Kennedy”는 기득정보이고 “the man... did not kill Kennedy”는 Mrs Oswald의 상념영역의 인식 사실이다. 이러한 화행 존재영역간의 논리적 괴리현상은 관극현장에서 쉽게 경험해 볼 수가 있다. 배우는 관객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세계에 있고, 극중 인물과의 관계는 인식영역 관계다. 극 중 장면에서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이 막이 내리면 다시 살아 일어나는 논리적 모순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은 두 세계간의 논리적 단절을 의미한다.

McCawley(1973, 57)는 (4-7)의 비논리적 논리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the girl who he

kissed”는 “John denies...”의 논리적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의견 첨가라고 한다. 그는 (4-7) 발화 속에는 “John denies...”를 지배하는 현실 세계의 논리체계와 “the girl who he kissed”를 지배하는 화-청자의 인식세계의 논리체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즉 일차원적 논리체계로서는 해석 불가능한 발화도 이원적 논리 체계로서는 해득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 3개 영역이 서로 독립적 논리 체계에 지배되고 있으나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호 보완 관계를 Ogden/Richard(1923)는 (4-8)과 같은 삼각도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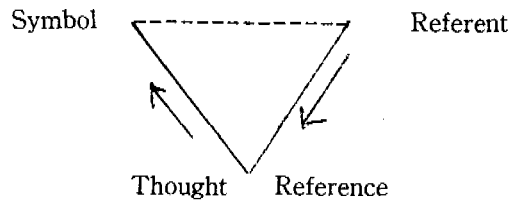
(4-8)



Peirce(1892), Frege(1982), Palmer(1981)등도 3개 영역관계를 삼각도형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Symbol”=“Linguistic world”, “Thought/Reference”=“Cognitive World”, “Referent”=“Real world”로 각각 대치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Symbol/Referent가 점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들 양자는 인식작용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상호관련될 수 없는 간접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언어는 현실의 반영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사고의 반영이다(Martinich 1986, 4). 사고영역에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언어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실체도 일단은 상념 영역에 인지된 연후에 기호화 과정에서 언어 매체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There is no world of objects existing independently of the knower---Klamke 1983, 28)라 하는 “Realism”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4-8)의 삼각도형이 발화를 해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이와는 대칭관계에 있는 화행과정을 대칭삼각도형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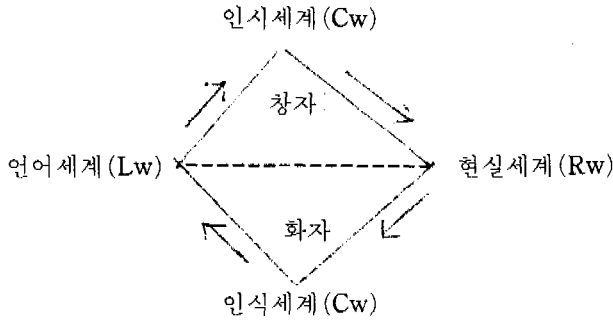
(4-9)에서 화살표는 현실세계에서 어떤 실체를 인식하고 이를 기호화 하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4-8/9)을 합하여 화-청자간의 대화의 장(speech context)을 도해 해보면 (4-10)와 같다.

먼저 화자가 현실세계나 자신의 인식세계에서 발견한 어떤 실체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언어화하여 청자의 인식세계에 전달한다. 청자는 언어 매체를 전달받아 그것이 지시하는 실체를 현실세계에서 대응 확인하여 발화의 의미(message)를 해득한다.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현실” ——— “화

(4-10)



자의 인식" —— "언어" —— "창자의 인식" —— "현실"로 이어지는 일주회로가 화행의
 장이며, "현실" —— "현실"의 일회순이 끝나야만 한 화행이 종결 되는 것이다.

Russell (1986, 214)는 "There is only one world, the 'real world'"라 주장하여, 일견 3개
 영역 이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나, Shakespears의 사상도 현실의 일부요,
 그가 Hamlet을 쓰면서 갖는 생각도 현실세계라는 것이다. 이것은 "Reality is mental"이라
 는 고진주의 철학(Idealism)에 바탕을 두고있기 때문이다(Klamke 1983, 23). 이 같은 현실
 적인 생각 속에 펼쳐지는 "Hamlet"의 세계는 "There is not an objective Hamlet"라 하여
 부인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When 'x' is a description, 'x does not exist' is not
 nonsense, but is always significant and sometimes true."라 하여 현실세계에서의 존재여
 부와는 별개의 논리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의 많은 언어학자들(Buehler 1982, 21: Halliday 1978, 64: Palmer 1981, 19: Miller
 1982: Levis/Pucelick 1982: Johnson-Laird 1976: Jackendoff 1983), 특히 Winograd(1983,
 14)는 발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상념 세계의 knowledge base에서 입력된다고 한다. 즉 발
 화현장이나 언어정보가 모두 인지된 상태에서 인식처리과정에 입력된다. 비단 외부로부터의
 정보 뿐만 아니라, 발화의도(current goal) 역시 상념영역에서 생긴다. 분석 철학에서도
 "...the meaning of any statement of fact lies in what would verify it in sense perception"이라
 하여, "의미"해석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식작용에 의존 한다고 주장한다. (Klamke 1983,
 16)

언어세계와 현실세계와 인식세계의 관계를 Jackendoff는 이렇게 말한다. "...the
 information conveyed(by language) consists of idea---entities in the mind and the information
 is about the real world---1983, 23).

V. 결 론

3 장의 의미 범주 이론과 4 장의 지시 실체 존재영역 이론을 이용하여 2 장에서 제기한 문
 제의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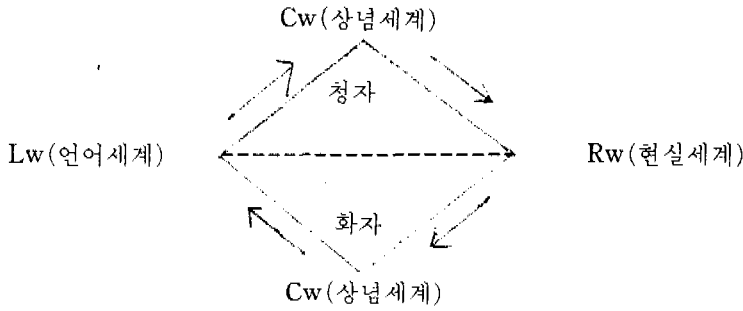
(3-7) /E/=E(xpression)

//E//=/E/가 지시하는 실체(referent) 또는 사실

<E>=/E/의 명시적 의미(conceptual meaning)

<E>=/E/의 발화적 의미(utterance meaning)

(4-11)



E # = /E/ 의 이중적 의미 (two-fold meaning)

- (5-1) 화자(S)가 청자(H)에게 ... 때(T)에 ... 곳(P)에서 ... 식(M)으로 “...”라고 말한다/묻는다/명령한다. (장 석진 1972, 20)
- (2-1) The meaning of “evening star” would be the same as that of “morning star”, but not the sense. (Frege 1986, 201)
- (2-2) The meaning of “morning star” is not Venvs, since one may not always say “Venus” in place of “morning star”(ibid)

문제 1. (2-1/2)을 (3-7)의 의미 범주로 대체해 보면 (5-2/3)과 같다.

(5-2) $Rw // ES //$ would be $Rw // MS //$, but $Cw \langle ES \rangle$ is not $Cw \langle MS \rangle$. (ES = “evening star” : MS = “morning star” : Rw = Real world : Cw = Cognitive world : 단 $Rw // E //$ 와 $Cw \langle E \rangle$ 는 무포함으로 지정함으로 Rw, Cw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5-2)을 다시 설명하면, ES의 지시실체와 MS의 지시실체는 현실 세계에서 같을 수도 있으나 ES와 MS의 명시적 의미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5-3) $Rw \langle MS \rangle$ is not $Rw // V //$, since one may not always say $Lw // V //$ in place of $Lw // MS //$. (V = Venus : Lw = Linguistic world : 단 $Lw // E //$ 는 무포함으로 정함으로 Lw는 생략한다.)

(5-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ege는 ES, MS의 의미를 그 범주를 밝히지 않은 채 $// ES //$,

$// MS //$, $\langle ES \rangle$, $\langle MS \rangle$, $\langle ES \rangle$, $\langle MS \rangle$ 로 분류 해석하고 있어서 “의미”해석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2-1/2)의 이해를 돕기 위해 (5-1)을 이용한다. (5-3)을 살펴보면 (2-1/2)의 문제점이 때(T)의 변수임을 알 수 있다.

(5-4) (a) To = timeless tense 이면, $// V //$ 는 $// V //$ 를 나타내지만, $// ES //$, $// MS //$ 는 $// V //$ 를 나타낼 수가 없다.

(b) Ti = in the evening 이면, $// ES //$ 는 $// V //$ 를 지시할 수 있으나, $// MS //$ 는 $// V //$ 를 지시할 수가 없다.

(c) Tj = in the morning 이면, $// MS //$ 는 $// V //$ 를 지시할 수 있으나, $// ES //$ 는 $// V //$ 를 지시할 수가 없다.

Frege가 (2-1)에서 “the meaning of ‘evening star would be the same that of’ morning star”라 한것은 화구의 T변수를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이다. 그러나 (2-2)에서 “The

meaning of ‘morning star’ is not Venus...”라 한 것은 (b)(c)의 시간 변수를 고려한 때문이다. 즉 “in the evening”에 본 Venus를 “morning star”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3) *Cicero is a word with six letters.

(2-4) * “Cicero” is a Roman senator.

문제 2. (2-3/4)를 (3-7)로 대체해 보면, (5-5/6)과 같다.

(5-5) //Cicero// is <a word with six letters>.

(5-6) /Cicero/ is //a Roman senator//.

(5-5)는 실물 //Cicero//는 <a word with six letters>라는 명시적 의미를 수용할 수가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5-6)은 기호 /Cicero/는 실물 //senator//가 아니라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언어 표현상의 이같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 인용부호사용 등의 문법적 제약이다. Martinich(1986, 5)의 (2-3/4)비문 판정은 “영 어법 제약조건 위반”에 근거한다. 이같은 사실은 언어세계의 논리는 현실 세계나 상념 세계의 논리와는 독립체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2-5) I am a bachelor.

(2-6) John is a bachelor.

(2-7) John is a unmarried adult male.

문제 3. (2-6)과 (2-7)은 “sentence”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의미(the same meaning)를 갖었기 때문에 그들 명제(propositions)가 같다고 한다(Martinich 1986, 6). 이러한 상호의미 관계를 (3-7)로 해석 해보자.

(5-7) /2-6/ (Martinich’s sentence) is not /2-7/, but <2-6> is the same as <2-7>.

문제 4. (2-5)는 (2-6/7)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2-5)의 발화자가 John이라면 (2-5/6/7)은 모두 같은 서술(statements)를 갖는다(Martinich 1986, 6). 여기에서 statements라 한 것은 표현형식의 한 형태를 이룬 것이고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화용론에서 말하는 utterance meaning이 된다. 이것을 (3-7)에서 <E>로 표기 했다. (2-5/6/7) 관계를 공식화 하면 (5-8)과 같다.

(5-8) <2-5> is not the same as <2-6/7>, but <2-5> is the same as <2-6/7> if and only if //I// is //John//.

이러한 관계를 밝혀보기 위하여 (2-5/6/7)을 화구(5-1)에 대체해보면,

(5-9) John이 청자에게 ...T, P, m... “I am a bachelor”라고 말한다.

문제 3. 4에서 Martinich가 “의미”구별을 하고 있는 “sentence” “proposition”, “statement”의 상호관계를 (3-7)로 해석해 보면 (5-10)과 같다.

(5-10) S, P, St가 /E/(sign)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E/를 <E>로 해석하면, 이때의 /E/는 statements가 되고, /E/=<E>이면 /E/는 진이다. 만일 /E/를 <E>로 해석하면 /E/는 명제가 되고, 이 때의 /E/자체를 sentence라고 한다.

(2-8) It is raining.

(2-9) Piove. (Italian)

(2-10) Es regnet. (German)

문제 5. (2-8/9/10)이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Proposition을 갖는다 (Martinich 1986, 6). 여기에서 말하는 Proposition은 Sentence, Statement와 함께 언어적 표현의 한 형태를 지칭한 것이다. 화맥 독립적 진위 서술문(context-independent true-false conditionals)를 뜻한다. Martinich의 주장을 (3-7)로 정리해 보면 (5-11)과 같다.

(5-11) /2-8/, /2-9/, and /2-10/ are not the same each other, but <2-8>, <2-9> and <2-10> are the same if and only if <2-8>, <2-9>, and <2-10> are the same.

(5-11)은 언어간 번역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Martinich의 설을 따르려면, 진위 조건문이 아닌 <E>를 나타내는 /E/의 처리문제가 미해결인 점은 일반 진위 조건 이론과 다를 것이 없다.

(2-11) If now a=b, then indeed what is meant by “b” is the same as what is meant by “a” and hence the truth-value of “a=b” is the same as that of “a=a”. In spite of this the sense of “b” may differ from that of “a”.

문제 6. (2-11)의 “a”, “b”에 자연어 NP_i, NP_j를 대치하면, 상이한 몇가지 상황을 설정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어 NP에는 서로 다른 의미범주가 있기 때문이다. “a” “b”를 자연어 변수로 보고, (2-11)을 (3-7)에 의해 해석해 보고자 한다.

(5-12) “a=b”이면, <a>=, <a>=, //a//=/b// 등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 중 하나만 성립하는 조건에서도 “a=b”가 충족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b//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이 성립되려면 /a//=/a/ 또는 /b//=/b/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the morning star(MS), b=the evening star(ES)라 하면, “a=b”와 “a=a”의 truth-value는 같으나 <a>와 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러한 언어의 의미범주를 무시한 형식 논리로서는 (2-11)의 설명이 어렵다.

(2-12) In the proposition “I met a unicorn”, the whole four words together make a significant proposition, and the word “unicorn” by itself is significant, in just the same sense as the word “man”. But the two words “a unicorn” do not form a subordinate group having a meaning of its own.

문제 7. (2-12)의 인용부호가 붙은 부분의 의미범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들 의미해석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들의 다른점을 (3-7)로 밝혀 보면,

(5-13) <I met a unicorn>, /unicorn/(or <unicorn>), /man/(or <man>), //a unicorn//.

이것을 다시 풀이하면, <I met a unicorn.>은 명시적 진위서술이기 때문에 서술의 현실적 진위를 불문하고 타당한 명제인 것이다. 언어적 기호인 /unicorn/은 언어가 존재하는 한 존재 가능하고, 또한 그 관념적 의미 개념은 실존여부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비존재적 실체(non-existent entity)의 존재는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a unicorn”은 부정관사 “a”의 사용규칙에 의하여 부정의 어떤 실체(실물)을 지시해야 한다. 이 때에 /a unicorn/이 지시할 실물 “unicorn”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 unicorn//은 의미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a unicorn//은 비 존재적 실체로 우리의 상념세계에 존재가능하다. 이것을 보다 정확히 표기해 보면 Cw//a unicorn//이 된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5-14)의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5-14) a. Justice is a virtue. (Martinich 1986, 3)

b. Nobody ever believes he's going to lose. (H & H, 310)

c. John wants to catch a fish and to eat it for supper.(Lyons 1977, 675)

“a virtue”나 “a fish”는 다 같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의 상념세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서 “a fish”는 실체지시어 “it”(anaphoric)로 대하는 영어법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Halliday & Hassan(1976 310)도 (5-14 b)의 예문에서 “he”가 지시하는 “nobody”의 예상항목(presupposed item)은 비존재적이라야 한다 하여 영실체(null entity)를 인정한다. Lewis(1946)는 “round square”와 같은 실체없는 존재를 지시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Russell 등의 주장에 반대하여(1946, 19) 비실체를 지시하는 말을 “Zero denotation)이라 하고, 이것은 잠재적기능을 갖는다고 한다. 연구가의 상념세계(Cw)에만 존재하던 TV가 발명의 결과 Rw//TV//로 존재하게 된 사실들이 이를 증명한다. “a virtue”, “a fish”, “nobody”는 각각 Cw<a virtue>, Cw//a fish//, Cw//nobody//로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Russell와 Lewis의 견해차는 Cw// a unicorn//의 존재인정 여부이다.

(2-13) ---dog has indefinitely many meanings. (“four legged”, “hornless”, “incapable of speech”...)

문제 8. (2-13)에서 “meaning”는 “dog”가 갖는 유형, 무형의 여러가지 특징을 망라한 것이다. 이러한 “meaning”의 해석 혼란은 의미범주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 되는 것이다. Leech(1981, 84)는 “dog”를 //dog//의 의미로 해석하고, 이것이 갖일 수 있는 모든 특징을 다 “dog”의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의미소성(semantic features) 이론으로는 비 존재적 실체의 의미소성은 어떤 방법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14) My tongue swore to, but my heart did not.

문제 9. Austin은 (2-14)와 같은 발화를 내면적, 정신적 행위 수행의 사실 전달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언급이 없다(1986, 117). 따라서 그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3-7)과 (4-9)의 이론으로 표기해 보면(5-15)와 같다.

(5-15) Rw<my tongue swore to>, but Cw<my heart did not>. (Rw=Real world: Cw=Cognitive world)

(5-15)에서 Rw<E>는 현실세계의 /E/의 명시적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Cw<E>는 화자의 인식세계의 /E/의 명시적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4-9)에서 언급했듯이, Rw<E>와, Cw<E>는 상호 독립적 논리체계를 갖는다. 이같은 발화의 이중적 논리체계 수용가능성은 (4-7)에서 McCawley도 예증하고 있는 바이다.

(2-15) Of course, he promises, don't you, Willie ?

문제10. (2-15)를 (5-1)의 화구에 의해 분석해 보면 두 화행의 통합형태임을 알 수 있다.

(5-16) (a) 화자(S)가 청자(H)에게 ...Ti, Pi, Mi... “of course, he promises”라고 말한다.

(b) 화자(S)가 청자(Willie)에게 ...Ti, Pi, Mj... “don't you, Willie ?”라고 말한다.

(a), (b)에서 S, Ti, Pi가 각각 서로 같고, 청자, Mi, Mj와 발화 내용이 서로 각각 다르다. 즉 동일 화자가,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a) 청자(H)를 향하여(Mi) “Of course he(=Willie) promises”라 한 다음, (b) 청자(Willie)를 향하여(Mj) “don't you, Willie ?”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화자가 발화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Mi, Mj 변수인 언어적 보조수단(청자를 바꾸어 택하는)을 원용하여 Message를 단일 발화로 송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 (a), (b)를 연결하는 고리는 //he// = //you// = //Willie//관계다.

(2-16) *The dead animal was still alive.

(2-17) *This beautiful city is ugly.

문제11. Leech(1981, 102)는 (2-16)의 ‘dead’, ‘alive’, (2-17)의 ‘beautiful’, ‘ugly’가 서로 상충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발화에 공기함은 모순이라하여 (2-16/17)을 비문이라 한다. 그러나 상용어로서는 화맥(speech context)에 따라서 수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문제(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Rw<E>와 Cw<E>는 상호 독립적 논리체계를 갖기 때문이다. 즉 Cw<E> at Ti와 Rw<E> at Tj를 Cw<E>+<E> at To로 표현 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논리로 (2-16/17)을 해석해보면(5-17)와 같다.

(5-17) /E'=the dead animal/---Cw<E> at Ti

/E'=the animal was still alive/--Rw<E'> at Tj

즉 “the dead animal”은 Ti시에 화자의 인식세계(Cw)에서 판단되었던 특정사실이고, “The animal was still alive”는 Tj시의 현실 세계(Rw)의 객관적 사실 확인이다. 화자는 Ti시에 자신이 판단했던 인지 사실과 Tj시에 발견한 현실세계의 객관적 사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음을 To(발화시)에 말해 본 것이다. (2-16/17)을 (5-18/19)의 축약된 발화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문장 각성분의 언급/사건 시(reference/event time), 언급/사건 장소(reference/event place)에 따라서도 (5-19/19) 등과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 (5-18) The animal that I had thought dead, was still alive.
 (5-19) This city which I thought beautiful is ugly.
 (5-19') //this// Cw<beautiful>(at Ti) //city// <is ugly> (at To.)
 (5-19'') //this//Cw<beautiful>(at Pi at To), <is ugly> (at Pj at To).
 (2-18) In 1940, Jane's husband was still a bachelor.
 (2-19) In 1940, Jane's husband divorced her.

문제 12. Fauconner(1986, 21)는 언급시의 시차로 인하여 동일한 언어기호(=E)가 상이한 실체를 표상할 수 있다는 실증을 통하여, (2-18/19)의 양립성을 증명한다. 이것을 (3-7)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면(5-20/21)과 같다.

- (5-20) At Ti, Cw//Jane's husband(at Tm)// Rw<was still a bachelor>.
 (5-21) At Ti, Cw//Jane's husband(at Tn)//Rw<divorced her>.

언어기호는 상이한 시점의 서로다른 실체도 동일한 /E/로 표상가능하다. (2-15)에서와 같이 /E="he"/, /E="you"/, /E="Willie"/가 동일인을 지칭할 수도 있고, (5-20/21)에서와 같이 한 표현 (/E/)이 서로 다른 두 실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 "Jane's husband"는 각각 Tm, Tn시의 Jame와 John을 지칭할 수가 있다. (Fauconner 1986, 21)

- (2-20) ? Boys are boys. (Leech)/Boys will be boys. (Wierzbicka)
 (2-21)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the present king of France.

Leech(1981, 103)는 (2-20)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동일 낱말의 반복(tautology)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Wierzbicka(1987, 107)는 이같은 tautology의 화용론적 의미를 구명하여, (2-20)의 함축 의미를 "the immutability of the phenomenon is caused by the wilful and uncontrollable spontaneity of the specified kind of human beings"라 하여 "아이는 아이일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하는 금언(maxim)으로 해석 한다. 여기에서도 (37)을 적용해 보면 //boys// are <boys>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눈 앞에 보이는 아이="//boys//"는 누가 무어라 해도 역시 "관념적인 아이의 속성을 갖인 아이="//boys//"일 수 밖에 도리가 없다. Russell(1986, 217)은 (2-21)이 위가 되는 이유로 고유의 (the definite) "the present king of France"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현실과의 불일치를 논하고 있으나, Strawson(1986, 227)은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일한 실존적 명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한 말이 그러한 명제를 내포하지도 아니한다하여 Russell에 반대한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은 발화시, 사건시, 언급시, 의미 범주 구분 등을 고려한 다원론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견해차 인것 같다.

- (2-21) This is a good hat.

문제 13. (2-21)은 허수아비에 씨울 모자를 찾다가 낡은 쓸모 없는 모자를 발견하고 만족해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사물의 평가는 시각에 따라 상반된 가치기준에 좌우된다. Leech(1981)등 의미론자들은 good/bad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있어서 상호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good---3;---2;---1;---0;1---;2---;3--- bad). 그러나 이같은 good/bad의 개념은 평면적 세계의 동일 가치체계에 국한된 논리일뿐이다. 이 같은 논리체계로서는 dynamic한 자연어 해석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good/bad의 평가기준이 평가대상 자체의 고유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그 사물에 대한 용도효과 예상판단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효용가치가 높다는 관념적 판단일 뿐, 구체적 상황판단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universal “goodness/badness”의 가치기준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2-21)의 /a good hat/는 화자의 상념세계의 판단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5-22)같이 해석될 수가 있을 것이다.

(5-22) //This// <is a> Cw<good>//hat//.

즉 //this//는 발화와 함께 지시한 현실세계의 실체를 나타내고, <is a>는 명시적 의미를, Cw<good>는 화자의 인식 판단에 의한 “specified good”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hat//는 발화현장에 있는 실물을 나타낸다.

문제 15.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언어학자나, 언어철학자들이 무엇인가 의미에는 다양한 상(facets)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 개념을 정의하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공인된 개념정립은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미 기호학(Eco 1979)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3장에서 논한 의미범주를 언어학에서도 수용하여 보다 다원적인 의미접근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References

- Allen, Keith. 1986. *Linguistic Meani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Austin, J. L. 1985, “Performative Utterance”(1961),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A. P. Martinic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Bloomfield, Leonard. 1933. *Language*, Holt, Rinehart & Winston, New York.
- Caton, Charles E. 1971. “Overview”, *Semantics*, ed by Steinburg/Jakobovi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 Crystal, David. 1980. *A First Dictionary of Linguistic & Phonetics*, Andre Devid. London.
- Eco, Umberto. 1979.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 Press, Bloomington Indiana.
- Fauconner, Gilles. 1986. “Roles and Connecting Paths”, *Meaning & Interpretation*, ed by C Travis, Basil Blackwill, New York.
- Fromkin, Victor/Rodman Robert. 198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Holt, Rinehart & Winston, New York.
- Greimas/Courtes. 1982. *Semiotics & Language*, Indiana U. Press, Bloomington, Indiana.
- Halliday/Has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London.
- Jackendoff, Ray, 1985. “Information is in the Mind of the Beholder”, *Linguistics & Philosophy*,

- vol. 8(1985), D. Reidel Pub. Co. Holand.
- Katz, Jerrold J. 1972. *Semantic Theory*, Harper/Row Publishers, New York.
- Klamke, E. D. 1983. "Introduction", *Contemporary Analytic and Linguistic Philosophies* Prometheus Books, New York.
- Langacker, Ronald W. 1983.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Indian Univ. Linguistic Club Bloomington, Indiana.
- Leech, Geoffrey. 1981. *Semantics*. Pengu Books, New York.
- Lewis, C. L. 1971. "The Modes of Meaning",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Rosenberg/Travis, Prentice Hale Inc. New Jersey.
- Lycan, William G. 1984. *Logical Form in Natural Languag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Lyons, John. 1977. *Semantics*, Cambridge U. Press, Combridge, London.
- MaCawley, James D. 1973. *Grammar and Meaning*, Taishukan Publishing Co., Tokyo.
- Martinich, A. P. 1985. "Intorduction",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Martinich, Oxford U. Press, Oxford.
- O'Grady/Boborovolsky. 1987. *Contemporary Linguistic Analysis*, Copp Clark Pitman Lts Toronto, Canada.
- Russell, Bertrand. 1985. "Descriptions"(1974), *The Philosoepy of Language*, ed. by Martinich Oxford U. Press, Oxford.
- _____ 1974, "On Denoting", *Readings in Semantics*, U. of Illinois Press.
- Shaumyan, Sebastian. 1987, *A Semiotic Theory of Language*, Indiana U. P. Bloomington Indiana.
- Strawson, P. E. 1986, "On Referring"(1956), *The Philosophy of Language*, ed by Martinich Oxford U. Press, Oxford.
- Wierzbicka, Anna. 1987. "Boys will be boys" ; 'Radical Semantics' vs 'Radical Pragmatics' *Language*, vol. 63. No. 1(1987).
- Wiggins, David. 1971. "On Sentence-sense, Word-sense and Difference of Word-sense", *Semantics*, ed. by Steinburg/Jakobovits, Cambridge U. Press, Bartley House, London.